농장의 질병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생산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자!

㈜옵티팜 동물임상평가센터 신성호 팀장

농장에서 질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험적 진단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경험적 진단은 경험한 만큼만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령, 관리 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농장에서 문제시 되는 질병이 바뀌게 되고 결국 농장에 실익이 없는 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즉, 질병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경험을 통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사례 1

A 농장은 40일령 전후 자돈 구간에서 계속해서 산발적인 급사가 발생하여 항생제로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값비싼 항생제도 써 보고 경험적으로 유효한 항생제로 바꾸어 써보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결국 질병 검사가 의뢰된 케이스이다. 의뢰된 돼지에서 위축 등의 외관상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고 부검 소견상 심장의 출혈이 특징적이었다. 폐장과 림프절을 대상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PCV-2(돼지써코바이러스 2형)은 음성이었으며 세균검사 결과 분리 동정된 세균 또한 없었다. 급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병리조직 검사를 병행한 결과 심근세포의 변성을 동반한 다발성 출혈 소견이 보이는 등의 멀베리심장병(Mulberry heart disease)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의뢰된 개체는 비타민 E/셀레늄 부족으로 인한 영상상태의 문제가 급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림-1 사례 1의 심장의 출혈 소견(화살표) 및 흉수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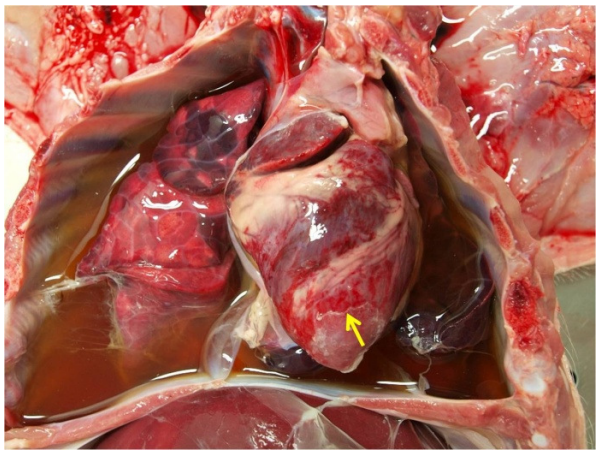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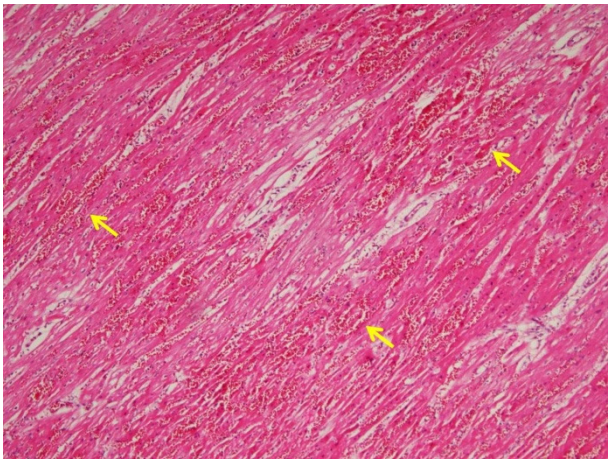


그림-2 사례 1의 심근 사이 출혈 소견(화살표)



사례 2

B 농장은 2복의 포유자돈에서 피부에 붉은 반점을 동반한 복 전체 포유자돈의 폐사가 발행하여 의뢰된 케이스이다. 부검시 피부, 신장, 위벽, 대장의 출혈이 관찰되었고 병리조직 검사 상으로도 신장에서 심한 다병소성 울혈 및 출혈이 관찰되고 심장에서는 심한 다병소성 출혈 및 비화농성 심근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역 염색을 통해 PRRS와 PCV-2는 음성임을 확인하였고 항원검사와 임상증상 소견상 EMCV(뇌심근염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님을 또한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농장의 병력과 농장 내 복단위 증상 발생과 심한 출혈과 피부 창백이 동반되어 있는 임상증상의 특성상 동종 면역성 용혈 반응(Isoimmune hemolysis)으로 진단되었다.

ERROR: undefined
OFFENDING COMMAND: f‘~

STACK: